2026년 1월 5일 | Global Asset Research

Issue Breaker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충격적인 지정학적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는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risk-off) 상황을 초래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IEA 추정 2026년 일일 380만 배럴)이 지속되는 한, 충격은 이벤트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유가는 단기적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장기 제재와 인프라 노후로 생산량이 과거 피크(300만 bpd)의 3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2025년 말 기준 수출량은 약 90~100만 bpd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위험 프리미엄을 즉각 유발한다.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이벤트로 5~10% (약 $3~6/bbl)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 그러나 OPEC+의 공급 안정화 노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중국 경제 회복 지연)로 중기적으로는 $55~65 범위 내 안정화될 전망이다.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현재 PDVSA 시설 피해 없음),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금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시 금은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부상한다. 2025년 금 가격은 이미 70% 이상 상승하며 온스당 $4,400 수준을 기록했다. 사건 발생 직후 추가 1~2% 상승을 보이며, 단기적으로 $4,500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 시 금 가격은 10~20% 급등했다. 이번 경우도 유사하게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지 않는 한 과도한 랠리는 제한적이다.

달러는 단기 강세, 중기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미 달러 인덱스는 불확실성 확대가 안전통화 수요를 자극하며 단기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군사 행동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와 외교 리스크 누적(라틴아메리카·중국·러시아 반발)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DXY는 이미 9% 하락한 바 있으며, Fed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이를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 이슈이나, 경험적으로 기회였다. 에너지 섹터와 방산 섹터는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체 시장은 할인율 상승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5~10% 조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글로벌 실물 경기 둔화로 연결되지 않는 한, 이는 구조적 하락이 아닌 이벤트성 조정에 그칠 확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 후 S&P500은 1년 내 평균 9.5% 상승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행동은 단기 리스크 오프를 유발하나, 베네수엘라의 제한적 시장 영향력과 글로벌 공급 과잉 환경이 충격을 완화할 것이다. 과도한 패닉 셀링은 지양한다. 사건의 후속 발전(안정적 정권 이양 여부)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